

# 진도 관매도 유채꽃 단지서 '봄 여행' 즐겨요

### 군, 9~12일 유채꽃 축제...13~20일 '나들이 기간' 운영 축제 기간 여객선 증편...진도항~관매도 6회 왕복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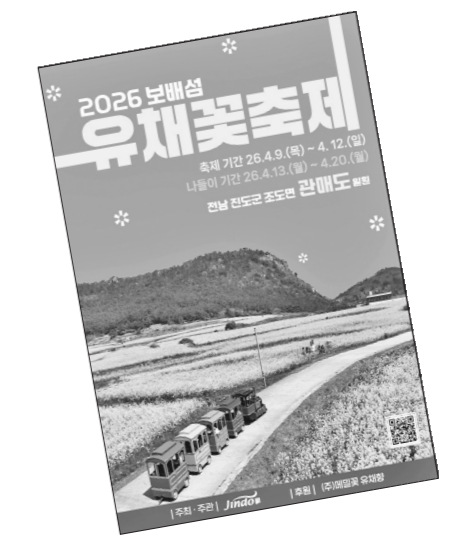
황금빛 노란 유채꽃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진도 관매도에 마련된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관매도 일원에서 '2026 보배섬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개막식은 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식전 공연으로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약 24만7933㎡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봄 풍경과 공연, 체험 등

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봄 여행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라인댄스와 춤바댄스, 아리랑 국악공연,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등이 진행되며, 체험행사로는 찾아가는 서화 체험, 미니 가차, 전통 놀이 등이 준비돼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유채꽃 길 걷기 대회'와 '관매도 탐방로 숲 해설'을 통해 섬의 자연과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축제장에는 사진 명당(포토존), 마을

시당, 특산물 판매장,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운영되며, 축제장과 관매도를 연결하는 왕복 운행 버스(셔틀버스)와 행사장 안에 있는 미니 가차는 1인 1일 통합이용권(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유채꽃 개화 기간에 맞춰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나들이 기간'을 운영하며, 사진 명당(포토존)과 이동식 화장실, 심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관광객들이 관매도를 편안하게 즐

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관매도 직항 운항이 시작돼 진도항과 관매도를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으며, 유채꽃 축제 기간에는 여객선 1항차를 증편해 하루에 총 6번 왕복 운항해 관매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관매도의 청정 자연 속에서 황금빛 유채꽃을 즐기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방문해 봄날의



수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재도약 발판 마련

### 2년 연속 노후관광지 재생 공모 선정...사업비 22억원 확보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가 2년 연속 전남도 공모 선정으로 '변신의 기회'를 잡았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노후관광지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원 확보했다. 군은 확보된 사업비로 '미디어월', '터치패널'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테마파크 내 전시관 수선공사(리모델링)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콘텐트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너른 야외 공간을 활용한 방향표, 볼물찾기 등 체험형 콘텐트도 운영할 계획이

다. 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여름 개장을 목표로 중앙광장 분수를 철거하고 물놀이장을 조성 중이다. 홍길동 테마파크의 정체성을 살려 전통성벽 디자인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길동 테마파크(홍길동로 431)는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면서 역사 속 실존인물인 홍길동을 주제로 꾸며진 공원이다. 복원된 홍길동 생가와 산재 체험장, 국공장, 야영장, 숙박시설 정비한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지



를 여름에 어울리는 홍길동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사진제공=장성군청

로 재격이라는 평가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 바다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심우정 장성군 부군수는 "2년 연속 전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홍길동 테마파크의 관광 자원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66699@gwangnam.co.kr

## 강진,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 지원...군민 부담 완화

강진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 및 건물(상업·공공)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진행된다. 이번 수요조사는 강진군 11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 대상은 강진군 관내 주택과 건물 소유자로 에너지원별 1건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강진군 인구정책과(분청 별관)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와 강진군이 공

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태양광은 약 74%, 태양열은 약 95%, 지열은 약 91% 지원이 이뤄져 군민의 초기 설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원별 자부담 비용은 주택 태양광 약 121만원, 태양열 약 110만원, 건물 태양광은 kW당 약 40만400원, 주택 지열은 약 253만원 수준이며, 기존 보조사업 설치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계량기 교체비 등 일부 부대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미등기 건축물 및 위법건축물은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형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욱 기자

## 영광, 벼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ha당 20만원' 상향...3억 증액

영광군이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벼 농자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당초 14억원이던 사업비를 17억원으로 3억원 증액하고, 지원단가를 ha당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단가는 약 17.6% 인상된 수준으로, 최대 10ha까지 적용된다. 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사태 이전 대비 6.7%에서 최대 12.8%까지 상승했다. 요소 비료원자재 가격과 농업용 필름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며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름다운 숲속 담양 만들어요' 새마을지도자담양군협의회(회장 윤석만)는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담양 수북면 오정리 농로길 주변에서 김중수 담양군 새마을회장과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숲속 담양' 만들기 일원으로 왕벚나무 60주와 지주목 설치 작업을 실시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담양군 새마을회는 지난 3월 무정면 봉안리 오례천 제방에 블루연꽃 모종 식재 등 푸른 담양 만들기 일환으로 2025년 1차 식목 행사를 가졌고, 이번 행사도 2025년 2차 식목 행사로 2025년 2차 식목 행사를 가졌고, 이번 행사도 2025년 2차 식목 행사를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담양,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 9월까지 집중단속...자진 철거 유도 등 조치

담양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 전반적인 수계 구역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책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4~5월 계도·철거, 6월 중 2차 조사를 추진한다.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함께 무단 설치된 펜스,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 나주시,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전국 1위'

### 목표 대비 139%...체계적 관리·지역경제 활성화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 평가에서 나주시는 목표액 대비 139%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93.1%)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방재정 소비·투자 집행은 예산을 실제 경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재정운용의 핵심 지표다. 소비 분야는 인건비·물건비 등 경상경비, 투자 분야는 도로·하천·시설 등 정비 등 지역 기반 확충 사업을 포함한다. 재정 지출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경기 둔화 시기에는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의 핵

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시는 신속 집행을 위해 사업별 준비 상황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매우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 사업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집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1분기와 상반기 평가에서도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재정 집행은 속도뿐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나주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